

승려의 독신생활은 무소유욕에서 시작

해외불교칼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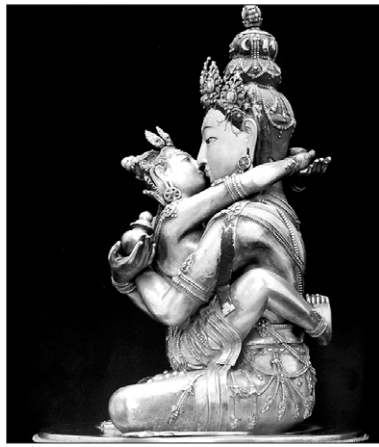
미국의 생활불교는 개인의 심신수양과 더불어 사회교화의 큰 기능을 수행한다. 다음은 쿠살라 스님이 로스앤젤레스 일대의 고등학교에서 펼친 청소년성문화에 관한 법문의 요약이다.

오늘날 로스앤젤레스에선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성적 행위를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스스로 기꺼이 성적 대상이 되기도 해요. 또 날달리 성적 매력을 타고난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한껏 즐길 수도 있어요. 심신이 정상적인 성인남녀의 성적 활동은 자연의 순리이자 인간의 본능입니다. 붓다께선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되도록 즐겁고 건강한 남성이셨습니다. 그분은 결혼을 하셨고 29세 때 아이도 갖게 되셨죠. 그분도 여는 남성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애정의 행보를 거치셨어요. 그러나 그분께선 35세에 이르렀을 때 모든 욕망을 버리고 니르바나로 향하셨습니다. 학생 여러분도 잘 아시듯, 니르바나라는 분이 나오려는 불이 꺼질, 즉 모든 욕정과 감정의 불길이가 사그라짐을 뜻합니다. 이는 모든 불자가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입니다.

이제 그럼 오늘날 자주 들춰지는 큰 의문에 대해 우리 함께 얘기를 나눠보죠.

‘성욕이란 곧 고통인가?’ 다시 말해서, ‘섹스는 반드시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걸까?’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모르지만, 저는 한마디로 ‘Yes!’입니다. 좀 놀라셨나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답변보다 그 이유에 더욱 주목하셔야 합니다. 붓다께선 욕정에 관해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성적 행위로서는 결코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이는 인간의 모든 욕구에 두루 적용되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떤 이가 방금 1000번째 섹스를 끝냈는데 금세 1001번째를 바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이젠 어느덧 아흔에 이르러 눈도 침침하고 팔다리도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는 기를 쓰고 여전히 섹스를 합니다. 그 끔찍하고 후줄근한 그림이 상상이 되세요? 이처럼 성적 행위는 성적 욕구를 없애기보다는 오히려 더 부추길 뿐입니다.

제 생각엔 섹스란 배고픔과 똑같아요. 다른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리죠. 저는 굶주림이 정말 지겨워요. 저는 지금껏 날마다 굶주려왔죠. 그래서 저는 배를 채우려고 먹고 또 먹고. 그러면서 때론 이런 생각도 해요. “아, 내가 먹는 걸 포기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을 벌수 있을까? 또 보다 가치 있는 일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것도 잠깐, 이내 또 먹을 궁리죠. “그래, 내일은 꼭두새벽부터



몽골 초이건리아사원 박물관의 금동불상.

먹고 싶은 걸 죄다 팔라 싹껏 먹어야지. 그럼 배속이 팍 들어차서 절대 더 이상 안 먹고 싶겠지.” 여러분, 이런 그저 우스개입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그렇게 했다면 어떤 무슨 일이 생길까요? 답이 아찔하죠. 다음 날 아침이면 배는 또 어김없이 고통 테죠. 섹스란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몇몇 학생들은 속으로 이런 말을 할지도 몰라요. “이보세요, 쿠살라 스님이야 계을 땀에 섹스를 안 하고 또 못하실 테죠. 나도 것처럼 독신생활을 택한다면 섹스의 고통을 겪을 까닭이 없다고요.” 하지만 청소년 여러분, 인생이 그토록 간단하고 쉬운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불교승려의

독신생활은 무소유욕에서 비롯합니다. 소 유욕을 지니고 성생활을 하는 일반인과는 다른 고통을 견뎌내야 합니다.

승려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성적 욕구를 지니는 만치 그에 따른 고통을 겪게 마련입니다. 어느 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어 요. ‘섹스에 싹껏 탐닉하고도 전혀 고통을 안 겪을 방법은 없나요?’ 글썽해요. 그 유일한 방법은 아예 섹스를 안 지니는 거죠. 제 대답이 불교의 공안(公案)처럼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고통을 떨쳐내려면 그에 앞서 욕망과 집착과 갈애(渴愛)부터 떨쳐내야 합니다. 우리가 오욕질정의 불길을 소멸(燒滅)하고 니르바나에 이르면, 욕욕의 수렁을 허우적떨 까닭이 없습니 다. 불교는 성행위보다 성욕, 즉 ‘행위’ 보다는 그 행위를 부르는 ‘근원’이 더 큰 문제라 가르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행위는 결코 성욕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또한 최종적인 해결책도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앞길에는 성적 쾌락과 비할 수조차 없이 고결하고 가치 있는 수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역·성휴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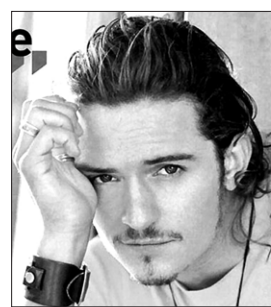
쿠살라 스님은 미국태생의 베트남 불교 승려이다.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의 고교, 대학, 교회에서 순회법회 및 사이버전법 활동 중 (Podcast Alley, iTunes 기타).

월드스타 불심도 스타

올랜도 불심도

포교방식이 로맨틱한가 봐요?

올랜도 불심은 ‘카리브의 해적: 흑진주’의 저주’가 히트한 직후 ‘MTV 무비’와 유명 연예사이트인 ‘아나노바’에서도 영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남자배우로 선정된다. 그리고 ‘피플’ 지에서는 가장 화끈한 미혼남성 중 하나로 뽑힌다. 또 2004년 그는 ‘스크린세이버’에서 유명인사 중 다운로드 톰을 차지한다. 그의 처사는 인기가 대학가에서도 마찬가지다. 캐나다와 미국의 대학신문, 사이버공간에 실린 올랜도 불심에 관한 학생들의 얘기 가운데 주로 종교부문을 간



올랜도 불심.

불심, 티나 터너 도반 등은 하루에 1시간 30분 남짓 찬불가를 부른다. 나는 하루에 4시간 넘도록 찬불가를 부르며 마약은 물론 담배도 술도 다 끊었다.” “그나저나 올랜도 불심은 참 회한한 인물이지요? 하긴 뭐, 우리가 지금껏 얘기한 사람들 모두 하나같이 독특하군요.” “아니, 왜 불교 신자들의 사생활에 이리궁저러궁하세요? 그 사람들은 남을 귀찮게 안하고 채식만 하고 대나무뿔자루로 마당을 쓸며 조용히 사는 게 꿈이래요.” “글썽, 불교가 도대체 무엇이지요?”

치수는 인기 속 대학가서 ‘불자란 사실’ 화제

다른 불자 스타들과의 관계 등 입에서 입으로

추렸다.

“올랜도 불심이 불교신자라요? 한때 신문, 잡지에 온통 그와 약혼 얘기까지 있었던 케이트 보스워스도 불교신자라던데.” “그렇대요.” “그 사람들 말고 우리가 알 만한 사람들 중에 또 누가 불교신자요?” “아, 알핏 떠오른 게, 제니퍼 애니스톤도 브래드 피트와 파경에 이르자 불교에서 위안을 얻었다고 해요. 그녀는 올랜도에게서 큰 위로를 받았대요.” “하하, 그런데 그녀와 헤어진 브래드 피트는 안젤리나 졸리랑 불교식 결혼을 했죠?” “그렇죠, 올랜도 불심은 요즘엔 오스트레일리아 모델 미란다 커와 사귀는데 그녀도 이제 불자가 다 되어간대요. 이 불론 올랜도의 영향을 받은 거겠죠.” “하하, 그의 포교방식이 아주 로맨틱한가 봐요?” “글썽요, 그보다는 아마도 굶고 맏는 깔끔한 성격 때문일 거예요.” “하지만 성격만치 깔끔하게 몸을 가꾸진 않나 봐요. 미란다 커는 그가 샤워를 잘 안 해서 질색이라면 마냥 매달리죠.” “제가 듣기론, 올랜도는 워낙 정이 많아서 누구한테든 무척 잘해준대요. 그는 얼마 전 코트니 리브가 1년이 넘도록 마약 중독으로 헤멜 때도 불문으로 이끄느라 무척 애를 썼대요.” “그래요! 코트니 리브는 올랜도가 자신의 영적 스승이자 생명의 은인이래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어두웠던 날들은 과거로 흘러보냈다. 이제 불교로 개종한 나는 남은 삶을 곱게 살려한다. 나는 불자다. 올랜도

“아, 그래서 제가 열린 사전을 출저했죠.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불교에선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있다고 여겨요.” “아하, 그래서 환생을 일종의 형벌이라 하나보요?” “맞아요, 환생은 막되고 못된 삶을 살은 사람한테 씌워진 굴레라는 거예요. 불교는 슬픈 번민과 고통의 시련이 가득한 어두운 삶을 벗어나 저 넘어 깨우침의 빛으로 향하는 방법이지요. 그렇듯 끊임없이 돌아가는 형벌의 바퀴에서 완전히 탈출하는 걸 니르바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혼에서 욕심을 추방시킨다면 누구든 니르바나에 이를 수 있다 그거요?” “하하, 깨우침이 참 빠르시군요.” “입만 잘 뻐어요. 이 답에 혹시 올랜도를 만나면 그간 벌어들인 돈 몇 백만 양만 자선기금으로 내놓으라고 해보세요, 그가 잘 쓰는 해적 같은 농담으로 말이지요.” “좋은 일에만 쓴다면야 재가다 한 통치를 내줄 걸요. 불교에선 남한테 베푸는 자비와 회사가 가장 큰 공덕이래요. 타이거우즈, 해리슨 포드, 리처드 기어, 애덤 요크 등 불자들은 다 그렇더군요.” “맞아요. 아, 근데 제가 듣기론 불교신자는 붓다 스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깨우쳐서 니르바나에 이룬다는데 그게 진짜예요?” “그렇대요.” “하하, 그럼 그 사람들은 별 신경 안 써도 되겠네. 값비싼 찬양행 티켓을 안 사도 될 테니까.” “게다가 지옥으로 안 내할 수행원도 지겹게 따라붙지 않겠죠.” (계속)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true happiness and prosperity”

대대손손 참된 행복과 번영



A man asked a Buddhist priest to write something down for the prosperity of his family. And the priest nodded. ‘Father dies, son dies, grandson dies.’ At this, the man got angry. “I expected something to bring happiness and prosperity to my family. How come you wrote such depressing words?” “If your son die before you,” the priest smiled, “it’d be an unbearable grief to your family. If your grandson die before your son, it’d also bring great sorrow. If your family, generation after generation, disappears in the order as described, it will be the natural course of life. This is true happiness and prosperity.”

어느 사람이 스님에게 가문이 번성할 축원문을 써주길 청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죽는다. 아들이 죽는다. 손자가 죽는다.’ 그걸 본 그가 발끈했다. ‘아니, 가문의 복락을 가져다줄 글월을 청했더니, 하필 이렇듯 짙짙한 말씀을 써주십니까?’ 스님이 빙긋 웃었다.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세상을 등진다면 그건 가족의 큰 슬픔입니다. 아들보다 손자가 먼저 떠나는 것 또한 큰 슬픔이지요. 제가 써 드린 순서대로 세상을 하직한다면, 이는 삶의 이치를 따르는 바머 대대손손 참된 행복과 번영이라 할 것입니다.’

번안·성휴 스님 그림·이태수

스님 주례 불교식 결혼 타케이·앨트만 동성커플

9월 14일 미국 LA 미일국립박물관에서는 ‘스타트렉’ 시리즈의 일본계 미국인 배우 조지 타케이(71)와 그의 오랜 동료 브래드 앨트만(54)의 불교식 결혼식이 스님 주례로 개최됐다. 그 동안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정식결혼허가를 받아낸 이들 동성부부는 약 200명의 하객들의 축하를 받았다. ‘스타트렉’의 동료 출연자 니켈 니콜스는 “지난 21년간 함께 지내온 두 사람이 서로의 행복을 법적으로 서약하는 자리다. 기쁨의 눈물을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People

訃 告

大韓佛敎法華宗 前 總務院長 正蓮堂 法眼 大宗師께서 世緣이 다하시어 佛紀 2552年 9月 24日(陰 8月 25日) 午後 6時 發王山 發王寺에서 圓寂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 永訣日時 : 佛紀 2552年 9月 28日 日曜日(陰 8.29) 午前 9時 ■ 永訣式場 : 江陵葬禮式場

- 證 明 : 성파
- 顧 問 : 수봉, 오봉, 금파, 운명, 원광, 지우, 정수, 보명, 양운, 법진, 백담
- 葬儀委員長 : 혜륜
- 葬儀副委員長 : 도정, 관효
- 葬儀委員 : 도광, 승현, 복규, 국봉, 원명, 혜산, 법원, 백봉, 광래
- 執行委員長 : 암현
- 執行副委員長 : 해암
- 執行委員 : 효진, 혜각, 도찬, 법산, 서봉, 광수, 광덕, 효웅, 진파, 일광, 흥선, 승현, 지혜
- 門徒代表 : 上佐 보광

大韓佛敎法華宗 前 總務院長 正蓮堂 法眼 大宗師 宗團葬 葬儀委員會